

# 어둠의 세계에 새 빛 되도록 ...

## 北동포 고통 벗어나길



최종대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북녘동포들이 하루빨리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서원한다. 진한 동포애를 갖고 우리 불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야 한다. 밥 한공기 나누는 마음으로 북한동포들에게 앞장섰으면 한다. (제19교구 회임사)

## 밝고 명량한 사회구현



박종형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두들 등불을 밝힌다. 금년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등불을 밝혀야 하는지를 각자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올해는 이웃과 더불어 밝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하는 서원을 세웠다. (제21교구 송광사)

## 매일 108배·참선·독경



김제현

부처님께서 설한 8만4천 법문이 일체 유심조(一切唯心造)임을 깨달아 탐진척을 생활화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매일 108배와 참선, 경전공부로 정진에 힘써 일상생활속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제22교구 대문사)

## 正道·正進하는 참불자



강창식

정도(正道) 정진(正進)의 서원을 다짐한다.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암울하기만 하다. 불교인만이라도 정도, 정진하여 진정한 종교인의 제 위치를 찾아 살맛나는 세상, 불국토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겠다. (제23교구 관음사)

## 현실문제 적극적 개선



이상현

오늘날 우리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부처님께서도 현실문제에 대한 투철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실천가였다. 우리 중생들도 각자 자기가 안고 있는 현실문제를 정당하고 올바르게 해결하려는 노력과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깨끗하고 안정된 사회가 될 것이다. (제25교구 봉선사)

불심 담아 지극정성 봉축한다. 오막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고 고결하게 피어난 우리의 불심은 진리의 향기되어 온 세계에 메아리친다. 민중생이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삶 함께 하고 지등광명의 영광 이루길 기원한다. (제14교구 법어사)

## 법의 수레 쉬지않고 돌길



박봉식

진흙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은 불자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부처님의 구족하심이 중생계에 두루하여 함께 자유인이 되는 그날까지 법의 수레바퀴 쉬임없게 세상의 어둠과 밝은 분별이 없는 그 자리, 불국토가 오늘에 이루어지기를 서원한다. (제15교구 통도사)

## 화합단결하는 선진국



권세목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온누리에 전파되어 맑은 사회가 하루속히 이뤄지길 서원한다. 또한 21세기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방향을 잃은 현실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진정한 선진국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제16교구 고운사)

## 敎理行果 가르침 실천



오주현

교리행과(敎理行果)란 가르침을 되새긴다. 敎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理는 진리의 실천이며, 行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敎理行果를 실현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성불의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제17교구 금산사)

## 생활속에 숨쉬는 신행



이순규

전법의 해인 금년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정식 출범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 금년 참사람 결사로서 구체적인 수행기반을 내세운 백양사 신도회장으로서는 신도들 뜻을 같이하고 자신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신행생활을 하길 소원한다. (제18교구 백양사)

5월 14일은 모든 생명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날. 天上天下 唯我獨尊, 하늘 위 하늘이라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한 시인은 "어둠의 이 세계에 불소식 전하사시라/ 기록하사라 새 부처님 오셨네"라고 노래했다. 조계종단 신도회장 및 조계종 교구신도회장들의 서원을 통해 불자들의 가슴마디에 세상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을 밝힌다. (편집자 주)

## 조계종 각 교구 신도회장

### 21세기 참지도자 선출



김한곤

불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올해 시행될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뽑아 다가올 21세기를 번영과 평화 가득한 불국토로 만들길 기원한다. 불자들부터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명한 의식전환을 기대한다. (제7교구 수덕사)

### 남북 한자리 모여 봉축



이병훈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서원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엔 기필코 거룩한 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남북한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민족통일의 과업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제8교구 직지사)

### 法の 향기로 도덕성회복



최동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혼탁한 사회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실천으로 마음의 불을 밝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회의 등불이 될 것을 다짐한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것을 서원한다. (제9교구 동화사)

### 양보·관용의 미덕 실천



서정수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양보와 관용을 베푸는 불자가 되길 서원한다. 국민 개개인이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국민안락을 이룩은 물론 개인적인 소원도 성취하길 기원한다. 6년 투병끝에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이의 성불을 축원한다. (제10교구 은해사)

### 어려운 이웃돕기 앞장



권영락

신도회와 사중(寺衆)이 합심하여 불국토를 앞장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신도들도 예전과는 달리 화합하고 조직화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청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되길 서원한다. 아울러 신행보다는 휴식과 관광을 목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는 예비불자들이 경전을 읽고 불심을 느끼게 되었으면 한다. (제11교구 불국사)

### '대장경에 새 생명' 성공



김동기

해인사가 법보종찰(法寶宗刹)인 만큼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중앙일보가 함께 밝히고 있는 대장경 전산화 후원사업이 성공적으로 회향되길 서원한다. 또한 가야산 주변에서 야기되고 있는 골포장 건설로 인한 사찰환경 파괴가 중지되길 바란다. 온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대장경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제12교구 해인사)

### 사회에 빛이되는 불자



이중환

부처님오신날은 자신만이 깨달은 진리를 가졌은 중생들에게 회향하기 위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신 날이다. 생활속의 수행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 빛이 될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한다. (제13교구 쌍계사)

###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류진수

연꽃 한송이에 법향 담아 만중생을 향하여 들어 보인 신 부처님. 연도에

### 팔정도 닦아 지혜얻길



홍성호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원한다. 여덟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八正道)를 닦으면 재산이 늘고 도에 가까이 다가서 남이 공격하고, 죽을 때 후회가 없으며 덕망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고 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 때, 그 삶의 길은 팔정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2교구 응주사)

### 나라안녕 천하태평을



김노연

나는 요즘 조석예불 때 올리는 '행선축원문(行禱祝願文)' 가운데 '국제안녕병혁소 천하태평법륜전(國際安寧兵革消 天下太平法輪轉)'의 의미를 자주 되새긴다. "나라가 편하고 병란이 없고 그래서 천하가 태평해야 불법이 제대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축원하는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요즘에야 알 것 같다. (제3교구 신흥사)

### 무명·악·혹 사라지길



김종락

초파일을 맞아 불자들은 모두 하나 이상의 등을 밝히고 소원을 빈다. 등불이 어둠을 물리치듯 무명을 밝히겠다는 서원이 서려 있다. "보시한 사람은 복을 얻고,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으며, 악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했다. 서원한전에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는 마음 한자락 깰것길 서원한다. (제4교구 월정사)

### 나누며 경건하게 살자



윤석관

물질문명의 만연으로 우리는 인간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대립과 경쟁, 불화로만 치달고 있다. "남에게 베풀면서 경건하게 살며, 일가친척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위없는 즐거움"이라고 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제6교구 마곡사)

### 주요종단 중앙신도회장

#### 남북통일 빨리 왔으면



송재건(조계종)

이 땅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국토분단에서 발생된 것이다.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면 반드시 서두에 남북통일을 기원한 다음 내 신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나의 서원은 더욱 애절하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미래는 남북통일에 있으며, 우리의 비극해소 또한 통일에 있음에 있다. 나무관 세운보살.

#### '나' 속에서 '나'를 찾기로



김철회(태고종)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나' 속에서 잃은 것을 나 속에서 찾자'는 서원을 세웠다. 불교의 진리는 '나' 속에 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도, 나를 나답지 않게 하는 것도 모두 나 속에 있는 불성이다. 불교는 나를 찾는 종교다. 나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나를 찾는 것은 모든 것을 찾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내 탓임을 깨닫고 부처님 앞에 참회하자.

#### 건강해야 나라도 부강



김유혁(천태종)

2년전부터 20여년간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없애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자연히 하루 평균 4천보 이상을 걷게 되니 건강 또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그러다보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절로 생기게 된다. 건강한 불자는 '건강유지'를, 그렇지 못한 불자들은 '건강'을 서원으로 삼아보도록 권하고 싶다. 모든 불자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

#### 각자 최선을다해 깨닫자



박종태(진각종)

깨달음은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혼란스런 사회, 어려운 경제 등 나라의 모든 분야가 깨달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모두가 깨달자'는 서원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다. 깨달음도 바로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올 부처님 오신날이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슬기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진흥기계공업사 농·업·기·계·제·작·전·문 대표 이영무

주소 : 경남 양산시 어곡동 158번지 유산공단내 TEL : 0523-386-1778~9 FAX : 0523-83-3177